



박소현의 섹.시.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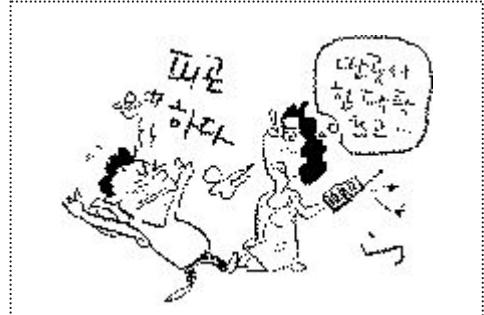
남편은 '피곤해'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다.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하는 말이 '피곤해'이고, 끝난 후 집에 들어오기 무섭게 인사 대신 던지는 말도 '피곤해'이다. 식탁에 앉아서도 피곤해서 입맛이 없다고 하고, 자기 전에 좀 씻으라고 하면 피곤해서 씻는 것도 귀찮다고 한다.

처음에는 정말 피곤한가 싶어 각종 보약에 영양제까지 아침저녁으로 대접하고, 집에서는 손 가락 하나 까딱할 일이 없도록 편하게 해줬다. 그래도 '피곤해'가 끊이질 않길래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까지 받게 했다. 정작 검진을 받자고 하니 남편은 그렇게까지는 안해도 된다고 했지만, 억지로 우겨 기꺼 만원을 들어 겸진까지 받았다. 약간의 스트레스와 피로증후군 증상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남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정도의 수치에 불과했다. 객관적으로 큰 이상 없음이 증명되었음에도 남편의 피곤해 타령은 끝나지 않았다.

매사가 피곤하기만 한 사람 아니니 잠자리도 오죽하겠는가? 남편은 토요일 밤이 아니고서는 절대 성스를 하지 않으려했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크게 인심 쓰면 두 번에 족했다. 결혼 3년 차에 아이도 없는데 한 달에 한두 번은 너무하지 않냐고 항의를 해도, 대답은 여전히 '피곤해서 못 하겠다'이다. '그렇게 피곤하면 당신은 가만

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여자로서는 다소 부끄러운 제의까지 하고 나섰지만 남편은 여전히 '팬티 벗는 것조차도 피곤하다'는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애이 오르고 화가 나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더 덤벼들었다가는 짐승취급까지 받을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는 우연히 남편이



두고 나간 핸드폰을 열어보게 되었다. 늘 몸에서 떼놓지 않아 안 그래도 수상했던 핸드폰 속에는, 아내가 물렀던 남편의 진실이 숨어 있었다. '오늘밤 00에서 기다려. 끝나자마자 달려갈게.', '바다 보라 가자. 집에는 어근한다 통보했어.' 대략 이런 내용들이었다. 그러니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매사가 피곤하기만 한 사람 아니니 잠자리도 오

죽하겠는가? 남편은 너무 피곤해서 바람 끝 기운도 없어."라고 할 때마다 쓰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네 남편, 순기락 들 힘도 없니? 순기락 들 힘이 없는 남자는 믿는 법이 아니야." 정말 처자식 며여 살리느라 피곤에 절어 있는 남편들에게는 열 받을 만한 소리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남편들이여, 정 바람을 피우고 싶다면 아내에게도 애인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잘 하기 바란다. 그리고 밖에서 힘쓰고 잡에 들어와 피곤한 척 하지 말기 바란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거니와, 피곤하다는 소리는 제발 닥쳐주기 바란다.

것이 나았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게 할 수도 없었다. 아내는 이를 갈며 다짐했다. 특별대우는 끝났다고. 정 말 피곤한 인생을 맛들여 주겠다고.

그날부터 아무리 피곤하다고 노래를 불러도 남편에게 잡안일을 시키고 이런저런 모임에 끌고 다녔다. 잠자리도 일주일에 두 번씩 요구하고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편이 피곤한 이유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탄생 "축하" "축하"

어에 울려놓았다.

지난 1997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인터넷 세상에서 화재가 됐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7일 다이애나와 연인 도미 알파드의 죽음을 이들의 운전 사와 이 차를 추적하는 파파라치의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사였다는 최종 평결을 내렸다.

10년 넘게 각종 음모론이 제기돼온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은 이번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판결과 당시 교통사고로 함께 목숨을 잃은 도미 알파드의 부친 모하메드 알 파예드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예드의 부친 모하메드 알 파예드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평결에 대해 네티즌은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짧지만 극적인 삶을 살아간 왕세자비에게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한다",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왕세자비의 죽음을 둘러싼 온갖 이야기들이 이대로 조용히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밥도 차려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미쳤나 하던 남편도 서서히 아내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했다. 저항하면서도 요구에 응했다. 불평과 투정이 통하지 않는 아내의 서슬 편리 기세에 놀라버린 것이다.

잔뜩 독을 품은 아내는 남편이 만성피로증후군 환자가 될 때까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사람 구실을 못 하게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다짐했다. 언젠가는 애인과 마누라들 중 하나는 포기하는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이 남자를 피곤의 극한 까지 몰아가겠다고 생각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복수가 될 것 같았다.

아내는 가끔 친구들이 "우리 남편은 너무 피곤해서 바람 끝 기운도 없어."라고 할 때마다 쓰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네 남편, 순기락 들 힘도 없니? 순기락 들 힘이 없는 남자는 믿는 법이 아니야."

정말 처자식 며여 살리느라 피곤에 절어 있는 남편들에게는 열 받을 만한 소리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남편들이여, 정 바람을 피우고 싶다면 아내에게도 애인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잘 하기 바란다. 그리고 밖에서 힘쓰고 잡에 들어와 피곤한 척 하지 말기 바란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거니와, 피곤하다는 소리는 제발 닥쳐주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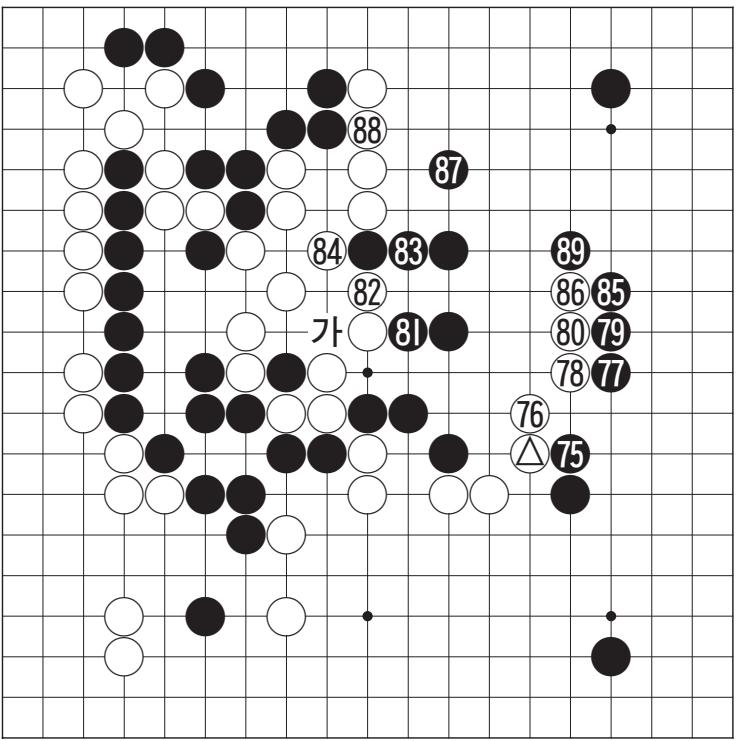


1997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다이애나 왕세자비.

검색정정 키워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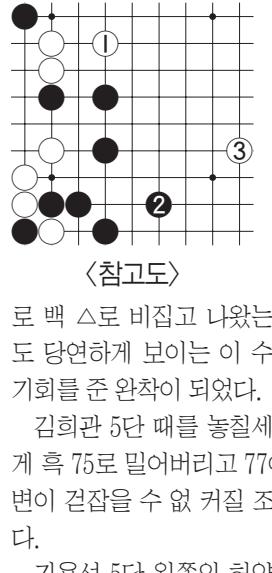
지난 8일 광주출신의 이소연씨가 탄 우주선 소유주호가 무사히 발사에 성공했다. 우주인 선발과 정부에서 밭사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네티즌은 "정말 부럽습니다. 앞으로 학교 교과서에 이소연이라는 이름 실리고, 면 훗날 학교 중간고사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소연씨 실험 마무리 잘 하시고 몸 건강히 귀환하시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을 축하했다. 네티즌은 예비 우주인 고산씨의 이름과 우주선 발사, 우주 정경장 등도 인기 검색



기우회 대항전

멋진先手행사 6보(75~89)

白 기용성 5단 (오로회) 黑 김희관 5단 (무석회)



기세 흑 돌을 공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른 으나 이 돌들은 의외로 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애초에 백 스로는 '참고도'의 백 1로 칠 곳. 그런 다음 흑 2로 봉쇄하면 3으로 우변을 갈라친다. 이러면 흑이 분 좋은 표정으로 백 스로 비집고 나왔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는 이 수가 흑에게 기회를 준 완착이 되었다.

김희관 5단 때 놀칠세라 대범하게 흑 75로 밀어버리고 77에 두자 우변이 겉잡을 수 없 커질 조짐을 보인다.

기용성 5단 왼쪽의 허약해 보이는

먼저 흑 81나 부딪힌 것이 좋은 수로 백의 달콤한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이때 백이 82나 84를 생략하면 '가'

의 단수를 당해 위험하다. 그래서 87까지를 멋지게 선수한 다음 89로 막게 되어서는 장담할 수 없는 형세로 변해버렸다.

<참고도>

이때 백이 82나 84를 생략하면 '가'

의 단수를 당해 위험하다. 그래서 87까지를 멋지게 선수한 다음 89로 막게 되어서는 장담할 수 없는 형세로 변해버렸다.

한때 중국 랭킹 1위였던 저우하영은 이번 도전기에서 재기를 노렸지만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구리의 벽을 끌어 넘지 못했다. 천원전 우승 상금은 10만위엔, 준우승상금은 5만위엔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하설위원

바둑소식

중국 바둑은 구리 천하

중국의 구리 9단이 '제22기 중국 천원전'에서 6연패를 달성했다. 구리는 지난 8일 막을 내린 이 대회 최종국에서도 전자 저우하영 9단을 맞아 236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구리는 이번 타이틀을 방어에 성공하면서 천원전 사상 최다(17기~22기) 연패 기록을 세웠으며 명인, 천원 타이틀을 포함해 창기배, NEC배 등 4관왕에 올랐다.

한때 중국 랭킹 1위였던 저우하영은 이번 도전기에서 재기를 노렸지만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구리의 벽을 끌어 넘지 못했다. 천원전 우승 상금은 10만위엔, 준우승상금은 5만위엔이다.

/오광철 9단·본보 바둑하설위원

리빙 센스

밥 지을 때 노하우

▲된밥과 진밥을 한꺼번에

식성들이 각기 달라 밥을 할 때 물 양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밥솥에 쌀을 안치면서 쌀 일부를 한쪽으로 몰아 물 위로 올라오게 하면 된밥과 진밥을 동시에 지을 수 있습니다. 물 위로 나온 부분은 된밥이 되고 물에 잠긴 부분은 진밥이 되어 사람들이 식상에 맞게 밥을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밥 지으면서 계란 삶기

밥을 지으면서 계란을 동시에 삶을 수 있습니다. 계란을 알루미늄 호일로 단단히 쌈 뒤 함께 밥솥에 넣고 밥을 지으면 됩니다. 호일로 쌈 두어 계란이 깨질 염려도 없고, 밥맛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달걀이 조금 단단하게 삶이 질 수 있으므로 샐러드나 샌드위치 속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감자나 고구마도 이런 방법으로 삶을 수 있습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1일(음 3월 6일) 星期一



36년생 신규 투자는 내일로 미루라. 48년생 자신만만 하지마라 적병이 승아있다. 60년생 협력자는 나에게나 메사에 신중 하라. 72년생 직장과 아내와의 불편사가 불편하니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허락하라. 84년생 희망의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거나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5, 41



37년생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하니 서로로서 이해하라. 49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진정은 지연된다. 61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다. 73년생 직장과 아내와의 불편사가 발생하니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허락하라. 85년생 길학 일과 흉한 일이 있으나 편안하니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20, 45



38년생 직업과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니 별별한 부탁이나 조언은 하지마라. 50년생 아내와의 불화로 해결하라. 62년생 대고는 없으나 편안하니 조망하니 조망하라. 74년생 흥과 복이 다반사나 수양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행운의 숫자 : 11, 27



39년생 규모를 축소하고 내실을 기하라. 51년생 주변이 자신의 길을 어지럽히니 종종하게 처리하라. 63년생 자신의 밭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좋은 길이 보인다. 75년생 좋은 매너로 조심하라. 77년생 주변에서 들판이나 길한 곳이다. 행운의 숫자 : 12, 45



40년생 해체보다 더 좋은 해결은 없다. 52년생 남이 시비를 걸어오니 협력하게 처리하라. 64년생 사소한 일로 관계에 가는 수도 보이니 자중이 최선이다. 76년생 급하면 그르거나 천천히 진행하는 풀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8, 30



41년생 자신의 쳇지를 살펴보면 할 일이 생긴다. 53년생 꾸준히 노력해 대가가 나타나려는 시기다. 65년생 걱정을 하지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다. 77년생 심상의 안정이 모든 일의 삶리를 줘 있다. 행운의 숫자 : 09, 40



42년생 흥분의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온다. 54년생 문서는 쥐었으나 실리 없는 문서로다. 66년생 계획으로 일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으리라. 78년생 세사가 불편하니 주변에서 도와주는 중인이 스스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07, 36



43년생 체면보다는 실리가 우선이다. 55년생 작은 일을 버리고 귀족 것을 취하라. 67년생 타인의 시기나 과롭하니 조심해서 하루를 보내라. 79년생 소심한 행동이 판단을 그르치니 적극적으로 고사하라. 행운의 숫자 : 20, 37



44년생 과거는 꿈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라. 56년생 소식이 속상하니 오늘은 어버려거나 가족에게 전해라. 68년생 과거의 문서가 속상하니 오늘은 어버려거나 가족에게 전해라. 80년생 좋은 일은 이웃과 함께 나누면 배가 되어 풀어온다. 행운의 숫자 : 21, 38



45년생 외형을 즐이고 솔직으로 추진하라. 57년생 서로가 이해하는 서로다움이 된다. 69년생 내일을 위해서 힘을 아끼우는 81년생 가족은 최고의 협력자니 사랑으로 보살펴라. 84년생 힘이나 나온다. 행운의 숫자 : 14, 27



46년생 가까운 곳에서 협조자가 나타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58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마음이 편하다. 82년생 끝내 무엇이 부리우다. 행운의 숫자 : 17, 25



47년생 실리는 적고 할 일은 많다. 59년생 마음이 갈팡질팡하니 경진을 가고들고 척하게 살아라. 71년생 외형은 줄이고 실리위주로 진행하라. 83년생 귀를 막고 지내면 마음도便하다. 행운의 숫자 :